

# 참선수행으로 이분법 넘은 절대자유 맛볼 수 있어

## 간화 禪 세계를 비추다

### 3수불 스님 안국선원장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은 동국대 불교학술원(원장 로버트 버스웰)이 동국대 중앙당에서 개최한 간화선 국제학술세미나 이튿날인 8월 13일 '간화선 수행의 대중화'를 주제로 기조발제문을 했다.



참선은 반야지혜를 통해 내면의 무명을 밝힐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으로 단도직입적으로 진리당체의 핵심 오의(奧義)를 곧바로 드러내게 한다. 선이 현실 속에 등장함으로써,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러층은 중생들을 깨달음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수단이었음을 알아야 한다.

선과 악으로 나누어진 이분법적인 사회윤리를 넘어서서 선과 악을 둘로 보지 않는 지혜를 터득하기 위해서는 참선 수행을 통해 눈앞에 보이지 않게 가로놓여진 정신적인 벽을 깨뜨리고 절대자유를 맛볼 수 있어야 한다.

중국의 선종(禪宗)은 인도의 28대 조사이자 중국에서는 첫 번째 조사인 보리달마로부터 시작됐다. 실질적으로 조사선은 육조혜능(六祖惠能) 선사(638~713)가 제창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육조 선사는 모든 사람이 본래 지닌 자성(自性)을 직시해 바로 그 자리에서 물록 깨치는 돈오 견성(見性)을 전명했다. 중국의 선종이 면면히 흐를 수 있었던 것은 육조께서 이러한 돈오선법을 은밀하게 펼쳐냈기 때문이다.

조사선이란 깨달음을 완성한 역대 조사들이 본래

갖춰져 있는 성품을 바로 눈앞에서 들여다 보여주시는 법문이다. 이 법문으로 말길과 생각의 길이 끊어진 자리에서 한 생각 돌이켜 스스로의 성품이 본래 부처임을 명확히 깨달으면, 어디에도 걸림이 없는 자재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일단의 일은 선지식, 즉 명안종사(明眼宗師)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모든 선어록에서 볼 수 있듯이 선종 특히 조사선 계통은 종사가 제자를 지도하는데 있어 지사문의(指事問義)의 방법으로 이뤄졌다. 그 과제와 내용은 스승과 제자가 이심전심(以心傳心)으로 정법의 안목을 체득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답들이 어록으로 기록되고 전승돼, 송대에 이르러 본격공안(正統화된 1700 공안)으로 완성됐다.

간화선은 남송대(南宋代)의 대혜종고(大慧宗杲) 선사가 목조사선(默照邪禪)의 무사안일한 적정주의(寂靜主義)에 빠진 당시의 상황을 개탄해 주창했다. 간화선은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깨달은 기연(機緣)과 상대방을 깨닫게 한 인연 등이 기록된 것을 근거로 해서 정해진 본칙공안 중 하나를 들어 절두절미

처럼 할 것인가? 간화선은 어떤 원리와 실제에 의해 운용되는가? 깨달음으로 가는 장치는 어떻게 시설되는가? 소남은 지난 20여 년 동안 1만여 대중들을 대상으로 간화선 수행을 지도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간화선이야말로 대중화 할 수 있고 또 마땅히 대중화돼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안국선원에서는 간화선 수행을 하려는 사람에게 화두를 듣게 하기 전에, 먼저 초심자 법문을 들려준다. 참선수행을 하기 전에 종교를 믿어야 하는 이유와 수행의 필요성에 대해 스스로 납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지극한 마음으로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참선수행에 임하게 하려는 뜻에서이다.

간화선 수행을 하려는 초심자에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선지식과 이 수행법에 대한 큰 믿음(大信心)이다. 수행자가 선지식에 대한 큰 믿음이 없다면 자기가 가진 선입견과 믿음으로 인해 이후 화두 참구 중에 발생하는 각종 경계를 이겨낼 수 없다. 오직 결정된 믿음(決定信)만이 이 공부를 성취하게 해줄 수 있다.

수행자에게 필요한 두 번째 요소는 이 벽을 꼭 뚫고야 말겠다는 대분심(大憤心)이다. 실제로 은산철벽에 부딪쳐보면 아무리 애를 써도 쉽게 뚫을 수 없기 때문에, 애간장이 타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막막하고 갑갑하며 끝도 보이지 않아서, 울분이 솟아나고 오기도 발동한다. 그럴 때 선지식이 공부 길을 부

너부터 아침까지 밤이나 낮이나 천 생각 만 생각이 오로지 다만 한낱 우물에서 나오려는 마음 뿐이고 끝끝내 결코 다른 생각이 없는 것과 같이 하여라. 진실로 이렇게 공부하기를 혹은 3일 혹은 5일 혹은 7일 하고도 깨치지 못한다면 서봉은 오늘 큰 망어를 범했으므로 영원히 허를 뽑아 밭을 가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간화선은 조사선에서 나온 것이기도 하지만, 두 수행법 모두 그 근본 원리는 동일하다. 즉 수행자는 의심에 걸려야 하고, 그것이 점점 커져서 온몸에 꽂자면, 시절인연을 만나 타파되면서 돈오를 체험하게 되는 것이 같다. 하지만 처음부터 선지식이 공안을 통해 초심자에게 화두를 걸어주고 결국 타파되도록 이끈다는 점에서 간화선 수행이 현실 속에서 공부하려는 이들에게 잘 맞는다.

현재 안국선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간화선 수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각자에게 손가락을 뽕겨 보라고 한 뒤에 문제를 제시한다.

“이렇게 손가락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손가락이 하는 것도, 내가 하는 것도, 마음이 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하지 않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나로 하여금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문제를 듣고 보았다면 문제에 따른 답만 찾으라고 주문한다. 그리고 문제를 따라 답을 알려고 하는 생각이 일어났다면, 뽕겨 석연치 않은 기운이 마음 속에 걸리게 된다. 무엇인지 모를 답답한

## 간화선 화두는 공안과 엄격하게 구분 돼야 정중동 되면 '거문고 줄 고르듯이 하라'

추기면 딱 막힌 기운이 천지 분간 못하고 치솟게 되는 법이다. 이 분심이 정진 차리지 못할 정도로 터져 나와야 웅맹스런 추진력이 생겨 눈앞의 철벽을 뚫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때의 수행자는 천군만마 속에 단기필마로 쳐들어간 장수처럼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한다.

세 번째로 필요한 요소는 활구 의심이 들려져야 한다는 점이다. 수행자는 마땅히 분참 공안 상에 나아가 의심을 일으키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애쓰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의심되어진 화두를 들고 참구해야, 생사심(生死心)을 타파할 수 있다.

이렇게 간화선 수행을 하는데 꼭 필요한 신심, 분심, 의심을 간화선의 삼오(三要)라고 한다. 일단 이제 가지 요소가 구비되면, 즉 신심과 분심이 충만한 상태에서 활구(活句)를 들고 의심하면, 그 의심은 단기간 내에 타파될 수밖에 없다. 중국 송말 원초(宋末元初)에 살았던 고봉원초(高峰原妙) 선사는 <선오>에서 이렇게 말했다.

“참선하는데 만일 한정된 날짜에 공을 이루려면 마치 천길 우물에 빠졌을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저

기운이 수행자의 안에 자리 잡게 되는 것이다. 그런 기운이 왜 생겼는가? 마치 목마른 자가 물 찾다가, 물을 만나지 못하면 목만 더 마르게 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상이다. 답답하니 알려고 해야 하고, 알려고 하면 할수록 궁궁해질 수밖에 없으니까, 이와 같이 되었을 때 계속해서 답을 찾고 찾으면서 끝까지 이 답답함을 놓치지 않고 온몸으로 의심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들리진 활구 의심을 참구하려고 선지식은 수행자를 다그치게 되는 것이다.

공부 중에는 혼침이 가장 무섭기 때문에 알아 있을 때는 눈을 뜨고 화두를 들고 졸리면 누워서 자라고 말한다. 그런데 자려고만 하면 깨우는 기운이 있어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면 더 이상 자려하지 말고 일어나 앉아서 최선을 다해 화두를 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앉아 있을 때 5분 정도 눈을 감았다가 뜰 수는 있어도 그 이상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공부가 되는 것 같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눈을 뜨고 공부를 지어 나가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산란심, 즉 번뇌 망상이 일어나더라도 무시하고 내버려 두라고 말해준다. 번뇌 망상을 없애고

현지사 소개  
그 첫 번째 이야기

## 팔정도 청명염불의 부처님 정법 교단 영산불교 현지궁 현지사

### 집에 한번 나오는 붓다 회상 -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도한다

4월 초파일 불축 10만 2천 등 천경 사진

모든 교단이 스스로 부처님의 법통을 이었다고 자처하지만 진정한 불법의 법통 계승종단은 바로 영산불교입니다. 무아 속 절대계에 계신 현재의 부처님 말씀을 전해드리는 진정한 정법 종단입니다.

**영산불교 창립 선포서**

불기 2551년(2007년) 음력 6월 15일, 아난존자의 후신, 자제만현 큰스님께서는 부처님 법 상속자 가섭존자의 후신인 만덕 큰스님으로부터 전법통증서를 물려받고 영산불교의 창립을 선포했습니다. 재단법인 영산불교 유지재단이라는 법인명과 함께 현지궁 현지사라는 사찰명을 가지고 있으며 '현지사(顯智寺)'는 삼매 속 부처님께서 직접 지어주신 이름으로 지혜가 드러나는 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락약세의 현실을 너무도 정확하게 보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가는 곳을 보았습니다. 절반이 넘는 사람들이 저승을 가지 못하고 출고 배고픈 채 무주구호으로 이승을 떠돌아다닙니다. 그나마 저승에 들어간 사람들도 90% 이상이 지옥에 떨어져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착하게 산다는 것을, 영원한 행복을 위해 수행을 한다는 것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나 하는 바 보스러운 행동으로 인식하고 있는 지금의 세상에 그것이 흠없노라 선인해를 선지식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경전에서 그러더라' '누군가가 그러더라'가 아닌 '내가 보고 확인하였으니 그것이 진실이더라.' 하는 그 힘으로 선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부처님을 모르면서 부처님종교(불교)라 하는 세상**

불교는 말 그대로 부처님과 그 분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불자들이 자성(마음)을 붓다로 알고 무아 속 절대계에 계신 인격적 부처님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경전을 읽을 때, 부처님께 예배할 때, 어떤 부처님을 칭명할 때, 진정으로 부처님께서 계시는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그러한 종교가 진실한 불교입니다. 수행중에 보게 되는 하늘마들의 변화신과 차원이 다릅니다. 저 깊고 깊은 무아 속 절대계에 계신 우리의 부처님께서는 형체와 인격을 지니신 채 우리 착한 불자들이 이끌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부처님을 알아야 합니다. 이제 현지가 세계 5억 불자들이 앞에 부처님의 실존을 이야기하고 사후세계, 육도윤회의 실제 모습을 확연히 드러내 보일 것입니다. 현지사에서는 부처님에 대한 믿음, 효행·나라사랑·스승공경, 법의 계율, 보살행, 실천행을 주장합니다. 이것이 세계적 종교, 범우주적 종교, 정법인 영산불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 · II(한글·일어·영문판) | 자재만현·광명만덕 공저 | 385면 | 25,000원
- 영산불교사상과 본문법연화경 | 381면 | 25,000원
- 영혼체윤회론 | 사상연구소 | 158면 | 10,000원
- 관음태교에서 천도까지 | 사상연구소 | 311면 | 15,000원
- 붓다의 메시지 존평 | 사상연구소 | 506면 | 15,000원
-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요해 | 사상연구소 | 269면 | 15,000원
- 칙천무후 | 송도현 | 238면 | 15,000원
- 영산불교의 법체계 | 사상연구소 | 80면 | 10,000원
-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 | 사상연구소 | 489면 | 15,000원
- 비교종교학 | 김중섭 | 537면 | 25,000원
- 법문집 | III·IV | 자재만현 | 631·540·648면 | 20,000원

**※자재만현 큰스님 BBS TV 법회 월1회 방영중!!**  
(QOOK 550, BTV 521, U+108번)

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천하는 현지사에서는  
**'부처님께서 주관하시는 천도대재'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현지사 대법회 - 매월 음 8일, 23일  
[http:// www.hyonjisa.com](http://www.hyonjisa.com)

영산불교 현지사 춘천 본사 033)243-1787,1795 / 대전 본원 042)525-5325, 5345 / 부산본원 051)554-5150